



기획시리즈

조경수목 산책 (VII)

- 동백나무 -



임 경 빈 / 농학박사

▶ 흰동백꽃, 필자의 집에서. 1992. 1. 15.



▼ 동백꽃 활꽃, 필자의 분재에서 1993. 4. 25.



1. 떨어지는 동백꽃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따뜻한 곳에 나는 동백나무는 그 꽃도 아름답지만 윤이 나는 진한 녹색의 잎이 뽀뽀히 나서 아름답다. 잎 좋고 꽃 좋은 것이 동백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쪽해안가에 따라 분포하고 내륙에서는 월동에 문제가 있어서 식재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제주도, 홍도, 흑산도, 거문도, 거제도, 충남의 외연도, 경남 동해안에 있는 목도, 울릉도, 경기도 서해안에 있는 대청도, 보길도, 오동도 등 섬에 많고 육지에 들어 와서는 백양사, 천은사, 선운사, 백련사(전남, 강진) 등 절간 주변에 숲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충남 서천군 마량리 해안 가까운 곳에 동백숲이 있다.

마량리의 것은 사람이 심어준 것 같고 육지로 보아서는 전북 선운사의 숲이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정의 시가 있다.

동백꽃이 떨어진다
 빗속에 동백꽃이
 시나브로 떨어진다
 파도소리 부서지는 해안에
 동백꽃이 떨어진다.
 억만년 지구와 주고 받던
 대화에도 태양은 지쳐
 옅은 구름의 면사포를 썼는데
 떠나지는 머언 뱃고동 소리와
 똑똑 지는 동백꽃에도



▲충남서천의 동백정과 숲

뜨거운 눈물지우던
 나의 벽찬 청춘을

이시는 더욱 이어지고

한가닥 남은 청춘마저
 떠난다면 동백꽃 지듯
 소리없이 떠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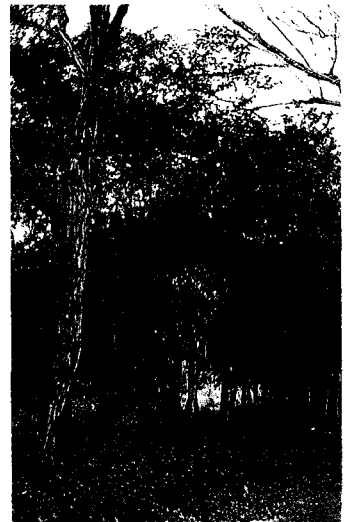
하는 대목이 다시 동백나무의
 이미지를 살린다.

동백꽃이 소리없이 똑똑 떨어진다는 표현은 동백나무의 꽃의 성상을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다. 살구꽃, 매화꽃, 벚꽃같은 것은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러내지 못한다. 화사하게 피어있을 그때의 아름다움이나 땅위에 수북 떨어져서 지면을 덮고 있는 상황은 시와 문장에도 나타나지만 동백나무는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위에 도달하는 그 사이의 동적인 경과상황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동백꽃은 똑똑 떨어지며 시나브로 떨어진다. 동백나무 이외의 나무로써 꽃을 이처럼 떨어 뜨리

는 것은 없다. 구태여 찾아 보려면 동백나무와 근친관계에 있는 노각나무 쭈미 있다. 그래서 노각나무를 일본사람들은 여름동백나무로 부르고 있다.

동백꽃은 한겨울에 똑똑 떨어지지만 노각나무의 꽃은 한여름에 똑똑 떨어진다. 이처럼 똑똑 떨어지는 상황이 쓸쓸함과 때로는 허무한 상황에 이어져서 춘수락(椿首落, 떨어지는 동백꽃)은 단절되는 인연을 상징하기도 했



▲강진 백련사의 동백나무숲 1990.

12. 20.

다. 유행가(?)에도 이것이 나온다.

선운사에 가신적이 있나요
 동백꽃을 보신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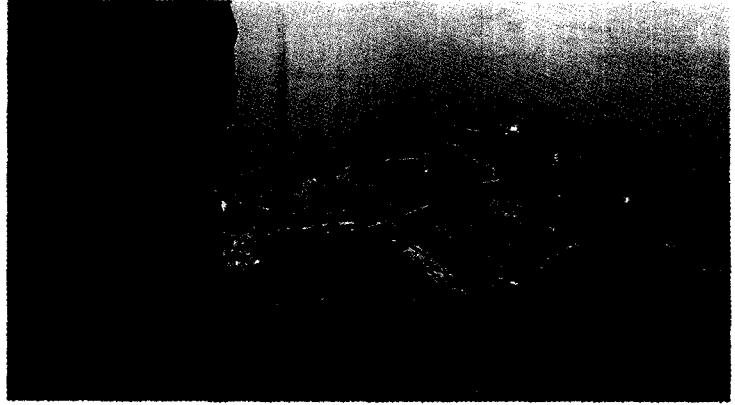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후두둑이란 움직임은 과정을 표현한 것인데 역시 동백꽃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비 뿌리듯이 흩날리는 꽃잎을 맞으면서라는 한량없는 수효의 꽃잎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백의 경우는 딱 꽃 한송이의 떨어짐이 주체가 된다. 떨어져가는 판에 구태여 동반자를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2 추백, 동백, 춘백

동백나무는 한자로 冬栢, 冬栢, 棟栢으로 쓰고 산다목(山茶



▲거제해금강의 동백나무숲 1986. 3.



▲전남 돌산도, 흔들바위와 동백나무마을. 1982. 9.

木)으로도 표현한다.

겨울동(冬)자가 들어가는 것은 잎의 푸름이 겨울을 이겨내고 주먹눈이고 가루눈이고 간에 눈뿌리는 겨울에 붉은 꽃을 피우는데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화록(養花錄)에 동백나무에 대하여 쓰기를

東國之產雪中能開者 俗稱冬栢
 單葉者 好生南 方海島中
 或有春花者曰春栢
 이라고 했다.

풀이해보면 동백나무는 동쪽나라에 나는데 눈속에서 능히 꽃을 피우고 홀꽃동백은 남쪽 섬지방에 많이 나며 봄철에 꽃을 피우는 것을 특히 춘백으로 말한다는 뜻이다.

필자가 수년전 전남 돌산도의 남쪽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동백나무의 노거목이 많았고, 동네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중 늦가을에 꽃을 다는 나무, 한 겨울에 꽃피는 나무 그리고 봄에 피는 나무등 화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추백, 동백, 춘백이란 명칭으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었다. 동백꽃이 피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3 동백나무과와 동백나무

동백나무는 동백나무과에 속하는데 동백나무과에 딸린 몇속(屬)의 성상을 보면 거의가 상록성이고 다만 노각나무속이 낙엽성이다. 동백나무과에는 다음과 같은 속이 있는데 대개가 수령(樹靈)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 많다. 이상한 일이다. 다음에 동백나무과에 소속하는 속과 그 속에 딸린 대표적인 수종을 들어 짧게 고찰해 본다.

(1) 동백나무 속

카멜리아(camellia)로 말한다. 이곳에서 논의해보고자 하는 속이다.

① 동백나무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동백나무의 산지이고 기후풍토상으로 보아 분포면적이 더 넓어서 이 수

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백나무를 일본사람들은 야부쓰바끼(ヤブツバキ)로 말한다. 이때 야부라는 말은 야생(野生)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동백나무의 꽃은 종(鐘)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반개상(半開狀)으로 말한다. 그리고 반개상의 꽃은 옆을 보거나 때로는 위를 향한다. 수피는 평활하고 회백색이다. 꽃에는 꿀샘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이꽃의 꿀을 빨기도 한다.

재배품종의 동백나무에는 꽃이 활짝피는 소위 평개상(平開狀)의 것이 있는데 야생종 야부쓰바끼에서 개량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마끼노박사는 야생종 야부쓰바끼와 재배종 쓰바끼를 다른 학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꽃이 종(bell)모양이 아니고 활짝피는 것을 뜰동백(v. hortensis)이라해서 변종명이 주어지고 있다.

동백나무는 원예가들에 의해서 수많은 품종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다 설명할 여유가 없고 그에 대한 필자의 지식도 부족하다. 꽃잎의 상태를 여

러갈래로 나누고 있으나 대체로 홑꽃과 겹꽃, 꽃색에는 흰색, 붉은색, 분홍색의 계통을 내세우고 꽃의 크기를 대륜(大輪, 지름 90~150mm), 중륜(60~100mm), 소륜(60mm 이하) 등으로 나누어 이것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많은 품종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 미에현에 있는 어느 집 뜰에서 금붕어 동백나무의 잎을 따서 표본으로 만들었고 그 표본은 지금도 필자의 서재의 벽을 다른것들과 함께 장식해 주고 있다. 「금붕어 동백나무」는 잎의 끝이 세갈래로 갈라지고 얼핏 금붕어의 꼬리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얻고 있는데 사람은 이처럼 흔히 표준적인 것에서 이탈한 이상한 것에 마음을 쏟아보는 경우가 많다. 별것은 아닌데도 금붕어동백에 가치를 부여해보는 것이다.

② 눈동백나무(雪冬柏)

이것은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것인데 혼슈(本州) 서쪽 해안에 면한 산허리(표고 300~1000m)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품종(生態品種)으로 해석된다. 그곳은 겨울동안 눈이 많이 쌓이는 곳으로 눈동백나무는 눈에 눌려서 높이 자라지 못하고 가지가 유연해서 눈에 눌리면 지면에 닿고 닿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형태적으로도 일반야생의 동백나무와는 구별이 되고 있다.

눈동백나무가 자라는 산허리

이하 부분에는 일반형동백나무가 나타나고 두종이 접근해있는 곳에서는 잡종동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 동백나무를 고찰할 때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③ 사잔쿠아 또는 애기동백나무

필자가 처음으로 사잔쿠아를 본것은 1960년대 일본 동경에 있는 매구로임업시험장의 구내에서였다. 가을인데도 한량없는 꽃이 나무를 덮고 있었다. 사잔쿠아는 일본원산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사잔쿠아(애기동백) 겹꽃, 제주 만장굴입구에서. 1992. 11. 19.

남쪽에도 도입되어 심어지고 있다.

필자는 제주도 서귀포 폭포 주변에서 또, 만장굴입구 주변에서 이 꽃을 볼 수 있었다. 애기동백 나무라는 명칭으로 도감에 나타나고 있다.

사잔쿠아는 동백나무와는 종이



▲동백꽃, 겹꽃 필자의 분재에서 1989. 4. 10.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나무는 교목이나 수피가 황갈색 또는, 흑갈색이어서 회백색의 동백나무와 구별되며 꽃봉우리는 잎의 밖으로 나타나서 잘 볼 수 있다. 동백나무의 꽃은 잎뒤에 붙어 숨어서 핀다.

사잔쿠아는 꽃이 가을에 피고 자방(子房)에 흰털이 뽀뽀히 나는 것이 동백나무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사잔쿠아를 조경목적으로 많이 심고 있다.

(2) 차나무속 *Thea*

차나무가 잘 알려지고 있다. 동백나무속은 꽃에 대궁(花梗)이 없으나 차나무꽃은 꽃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나무의 꽃은 아래를 보고 피는 것이 다르나, 꽃피는 시기는 역시 겨울이다.

(3) 빗죽이나무속 *Cleyera*

잎에 거치가 없고 꽃은 양성화(兩性花)이다. 어린가지는 녹색이다. 빗죽이나무가 있다.

(4) 사스레피나무속 *Eurya*

잎에 거치가 있다. 꽃은 단성(單性)이다.

사스레피나무가 있다.

(5) 노각나무속 *Stewartia*

낙엽성이고 수피가 조각조각으로 잘 떨어진다. 여름에 흰꽃이 피고 꽃의 지름은 50~70mm쯤 된다.

이밖에 후피향나무속이 있다. 이들 속은 모두 동백나무과에 속속된다.

4. 동백나무과 수목과 신성(神性)

동백나무의 꽃이 불사(佛寺)에 쓰이고 빗죽이나무 잎은 일본에서는 신(神)을 모시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노각나무는 불타가 이 나무 아래에서 열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종교적 의미가 크게 주어지고 있다. 필자가 중학교시절 즐겨 암송하던 구절에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종소리,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울림이다. 사라쌍수(沙羅雙樹)의 꽃색은 성자필멸(盛者必滅)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가 있다. 기원정사는 석가의 설법도장이고 사라쌍수는 인도에 흔히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용도가 다양하다.

난대, 온대지방에 있어서는 이 나무와 잘 닮은 나무가 노각나무이므로 절간부근에 노각나무를 영수(靈樹)로 심었고 사라쌍수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빗죽이나무를 신에게 바치는데 그나무의 한자명이 빗죽이나무신(櫛)이고 이것은 일본한자이다. 꽃을 불전(佛前)에 바칠 때 그것을 산화(散華)라 하는데 꽃에 따라서는 동백나무꽃이 산화에 쓰인 모양이다.

5. 동의보감의 동백나무

동백나무에 대한 현재의 중국명은 산다화(山茶花)이나 옛적에는 해류(海榴)로 말했다. 해류는 해석류(海石榴)를 간단히 한 것이다.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동백



▲분재로 키우고 있는 동백. 울릉도 천부에서.

나무를 산다(山茶)로 나타내고 있다.

동백나무에 대한 이시진의 설명을 보면 「그 잎은 차(茶)나무의 잎에 닮고 음료로 쓰일수 있으므로 산다로 말한다. 잎이 두텁고 겨울에 붉은 꽃이 피고 수술의 꽃밥은 노랑색이다. 꽃에는 변이가 많은데 꽃잎이 모여서 구슬처럼 된 것을 보주(寶珠)라 하는데 가장 뛰어난 명품으로 취급한다. (지금도 보주형은 신기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꽃모양에 따라 해류다(海榴茶) 석류다(石榴茶) 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6. 동백나무기행

(1) 미국의 동백

동백나무는 구미대륙으로 전파되어 정원수로서 큰 각광을 받고 그곳에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야포니카종의 동백나무만 하더라도 3000종 이상의 품종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필자는 1957년 늦가을에 미국남부 지방의 동백나무 정원을 본적이 있고 그뒤 캘리포니아주에서 동

백나무수집원을 본 적이 있다.

이 나무에 대한 그들의 연구와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동백꽃 한송이의 사진을 이곳에 보인다.

(2) 홍도의 동백

필자는 그간 우리나라 몇 곳의 동백나무숲을 답사했었다. 1950년대 후반기쯤 전남 광양군 옥룡면에서 본 오래된 동백나무숲이 인상깊게 기억에 남아 있다. 그 숲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때론 궁금할 때가 있다.

서해 홍도는 수차 찾은 일이 있으나 1982년 7월 하순에 찾은 홍도와 1992년 겨울의 홍도는 종종 되살아나곤 한다. 1982년 여름 나는 다도해해상 공원설계용역 책임자의 자격으로 다도해를 답사하는 편에 홍도도 본 것이다. 당시의 기행내용이 필자의 수첩에 남아 있다. 동백나무에 인연을 붙



▲ 동백꽃의 변형, 미국 캘리포니아 vaucuse house에서

여서 수첩의 글귀 몇대목을 뽑아 본다.

7월 26일(월) 임술년 기망(既望)이 멀지 않은 때에 홍도의 아름다운 절벽을 찾아서 우리는 떠나고 있었다. 먼저 목포의 유달산을 답사하고 이튿날 홍도로 갔다. 홍도1리 뒷산 낮은 곳에 있는 상록활엽수림에는 동백나무 잣밤나

무둥이 많았다. 또 수첩에 다음이 있다.

「1982년 7월 29일(목). 새벽에 장대같은 비가 오고 있었다. 힘센 빗줄기 속에 잠겨 있는 홍도가 불만하다. 남해의 고도가 호우의 한복판에서 그 지질시대의 얼굴을 세척하면서 유구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지만 인간의 수유(須臾)로서는 항재불변(恒在不變)같은 것을 느낀다.

애인생지수유(哀人生之須臾) 하고 선홍도지불변(羨紅島之不變)이라 할까. 잠깐 동안의 인생이 홍도의 영원을 부러워 한다. 동백숲도 아직 죽죽 내리는 빗줄기속에서 새벽잠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

1991년 2월경 나는 다시 홍도의 동백나무숲을 찾았다.

1리마을 뒷쪽에 있는 상록활엽



▲ 동백의 낙화, 홍도1리, 1990. 12. 15.

수림에서 땅위에 흥건하게 떨어져 있는 붉은꽃을 볼 수 있었다. 진하게 빛나는 잎의 푸름을 고향으로 해서 피처럼 붉은 영광의 색깔을 방산시키면서 생명의 환희에 취해 어쩔줄 모르다가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저세상의 나락으로 곤두박질해서 지금은 땅위에서 씩음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혼장같은 최후의 색깔이 변해가고 있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바로 그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해서 사진에 소중히 담아 보았다.

(3) 돌산도의 동백

1982년 9월 2일(목). 다시 다도해를 답사하기로 하고 서울을 떠났다. 3일 여수시에서 배를 타고 돌산도 남단 임포부락으로 갔다. 그곳에는 해발고 323m인 금오산에 있고 섬남단 절벽부근에 향일암(일명 영구암)이란 암자가 있으며 산으로 약간 오르는 곳에 흔들 바위가 있다.

향일암은 서기 63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이산에는 큰 굴피나무가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딸나무도 많았는데 마을사람들은 박달나무로 부르고 있었다. 국민학교 아이들이 산딸 열매를 모으고 있었다. 맛좋은 열매이다.

임포부락이 바로 동백나무마을이다. 춘백과 추백이 주이고 한겨울에 꽃피는 동백은 적다고 한다. 이 마을의 동백은 심어준 것이 아

니고 자연생이라고 이장이 설명해 주었다.

임포마을 앞에 밤섬이란 섬이 있다. 이섬의 발달한 상록활엽수림은 원시림에 가까운 것으로 학술적가치가 매우 높게 보였다.

(4) 거문도의 동백

4일(토). 여수를 떠나 나로도(나라도로 흔히 말한다), 손죽도, 초도를 지나 거문도로 갔다. 거문도는 동도, 서도, 안노루섬등 몇 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거문리 마을 뒤에는 우거진 동백숲이 있다. 철빠른 때라 간혹 붉은꽃이 드문드문 선을 보이고 있었다. 거문도 서도(西島)에는 1904년에 점등된 유명한 등대가 있다.

등대로 오르는 오솔길을 따라 많은 동백나무가 나타난다. 나는 거문도 서도에서 흰꽃동백나무(forma albipetala)의 거목을 보았



▲ 흰꽃동백나무와 그 주인, 거문도 서도에서 1985. 10. 29.



▲ 거문리 뒷산의 동백숲 1985. 10. 30.

고 그 주인아주머니를 앞에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 그 곳 흰꽃동백나무는 줄기가 두갈래로 갈라지고 각각의 흉고직경은 20cm쯤 되었다. 12월부터 피기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된다고 했다.

거문리 이장이 그뒤 흰꽃동백나무의 묘목 3그루를 우편물로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을 키우면서 황홀한 흰꽃을 피우게 했는데 이곳에 그꽃을 사진으로 보인다. 흰동백의 자생은 보기쉽지 않다. 거문도는 동백나무의 섬이라해도 좋다. 더운곳의 섬은 더운 꽃으로 장식되는 것이 격에 맞다.

1985년 10월에 나는 다시 여수의 오동도와 거문도 그리고 천은사(泉隱寺)의 동백나무를 찾았다. 오동도의 동백숲은 유명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동도에서 절세의 미녀가 도적에 쫓겨 물에 빠져죽게된 뒤 한포기 동백나무로 변해서 그의 미모를 동백꽃으로 형용했다는 전설은 그대로 믿고 싶다.

거문도 동도(東島) 거문리 뒷산의 동백은 양력 12월에 만개한



▲여수오동도의 동백숲 1985. 10. 30.

다는데 지금도 하나둘 피고 있었다.

(5) 천은사의 동백

지리산 천은사(泉隱寺)로 왔다. 주변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은행나무의 거목들이 들어서서 이곳이 예사스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산홍이 방장선원(方丈禪院) 앞에 한 그루 서있고 수령이 100년생이라며 자랑이 대단하다.

나무높이 3.5m쯤으로 보았다. 나즈막한 돌담 단위에 큰 동백나무 한그루가 서있다. 뿌리목줄기 직경 25cm쯤되는 거목이다. 그 앞으로는 「산왕지위(山王之位)」라고 새긴 돌이 서 있다. 산신령이란 뜻이다. 소원성취를 위해서 이 동백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나무에 영성(靈性)이 주어지고 있다.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 부근에 연곡사가 있고 그 경내에 4~5그루의 거목 동백나무가 서있다. 이 나무 또한 연곡사의

자랑으로 되어 있다. 피아골 삼홍소(三紅沼)에서 단풍을 즐기며 점심을 먹고 광주로 가서 장어정식으로 저녁을 먹고 비행기편으로 서울로 왔다.

(6) 목도의 동백

1985년 6월 2일(日). 나는 경남 울주군 온산면 방도리 앞바다에 있는 목도(目島)를 찾아 갔었다. 섬모양이 사람눈과 같다해서 눈섬으로 말한다.

또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섬으로도 부르고 있다. 이섬에는 후박나무, 다정큼나무, 사철나무, 송악등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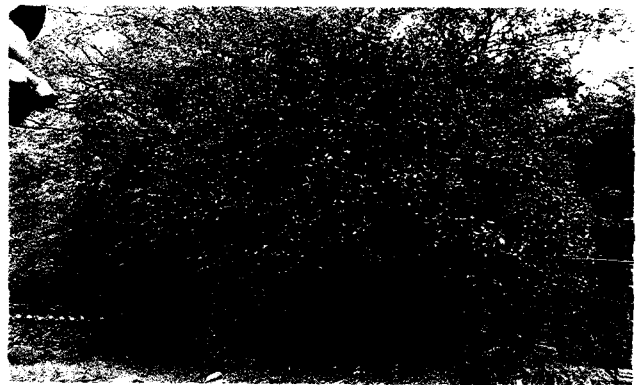
있어 동해안 섬으로는 특이하므로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고 있다.

동해안에는 섬다운 섬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목도는 상록수림으로 덮여 있다. 멀리는 울릉도가 있긴 하다. 목도는 육지부에서 300m의 거리에 있고 많은 사람이 찾아 유원지 비슷하게 되고 말았다.

엄격하게 보호되어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하는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지금쯤은 바른 질서를 찾았을지 모른다. 목도를 춘도공원(椿島公園), 동백나무공원으로도 부르고 있었는데 공원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목도안에는 술집이 많았다.

군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목도에는 414그루의 동백나무가 있다. 단 줄기의 흉고직경 3cm 이상의 것이 조사대상으로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밟아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었다.

섬안에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곳으로 옮겨갔다고 들었



▲천은사의 동백나무 1985. 10. 31.



▲익어가는 동백열매. 범어사에서
1985. 10. 10.

다. 목도의 귀중한 동백나무는 잘 보호되어야 한다. 목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굵은 첩이 있고 뿌리목줄기 둘레가 127cm에 이르고 있다. 이 부분이 지난날에는 뿌리였을지도 모른다. 이 첩 옆에 수고 12m, 줄기 흉고직경 25cm의 큰 동백나무가 서있다.

7. 몇 고전에 나타난 동백 나무

몇몇 옛책에 나타난 동백나무의 설명을 살펴본다. 먼저 산림경제에는 동백(冬栢)을 산다화(山茶花)로 표현하고 동백나무의 품종을 설명하고 키우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동백과 춘백을 서로 다른 품종으로 다루고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동백이 취급되지 않고 있는것이 좀 이상할 정도이다.

규합총서에는 산다화(山茶花)는 동백꽃을 말하며 이나무는 성미가 조(燥)하니 차고 덥기를 알맞게하고 화기(火氣)를 가까이 말며 잎과 가지에 다른것을 대지 말라. 가지 3치를 꺾어 분에 심고 낮

에는 햇볕을 가리우고 밤에 이슬을 맞게 하면 반달만에 뿌리가 내리게 된다고 했다.

군방보(群芳譜)에는 동백나무를 산다(山茶)로 해서 품종과 재배법을 설명하고 있다.

1926년에 낸 임업시험장시보 제5호의 내용을 이곳에 소개하면 산다(山茶)는 동백(棟栢)나무인데 가지가 많고 자람은 느리다. 목재는 기구재, 기계재, 농구재, 악기재, 빗(櫛), 신탄재등으로 쓰이고 종자에서 기름을 얻는데 이것이 동백기름이다.

제주도, 울릉도, 옥구군의 어청도에 분포하는데 특히 흑산도에 가장 많다. 바닷바람을 잘 막으므로 해안식재에 알맞는 수종이다.

마지막으로 외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의 내용이 재미있어 소개한다. 이 책은 중국 명나라때의 삼재도회를 본받아 일본사람이 쓴 책으로 1711년에 나왔다. 다음과 같다.

동백나무류 즉 해석류(海石榴)는 참죽나무(椿)와는 다른 것이나 일본사람들은 동백나무에 춘(椿)자를 쓰고 있다. 해석류는 동백나무과를 뜻하는 것이고 그안에 한종인 산다화(山茶花)가 있다. 열매로 기름을 짜는데 이것을 목실유(木實油)로 말한다.

칼에 칠하면 녹이 슬지 않고 이것으로 칠기를 닦으면 윤이 난다. 머리에 칠해도 윤이 나는데 머리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들깨기름

과 섞어서 머릿기름으로하면 좋다. 겹꽃동백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꽃은 아름다우나 시들때에는 보기에 좋다. 흘겹의 붉은꽃 동백을 산춘(山椿)이라하는데 이것이 동백나무의 본원(本源)이다.

겨울 일찌기 피는것을 조개(早開)라해서 숭상한다. 동백나무 꺾은 줄기를 끊어 불로 구으면 껍질이 잘 벗겨지고 표면이 맨들맨들해지는데 승려들은 이것을 지팡이로 한다. 승려의 지팡이 주장자(柱杖子)는 종이 좌선이나 설법할 때 지니는 것이다.

이책에는 중국 사천(四川)에 나는 당해석류(唐海石榴)를 칭찬하면서 별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은 이곳에서 생략한다.

중국 명나라때의 삼재도회를 보면 역시 동백나무를 산다(山茶)로 하고 품종명을 들고 꽃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모란, 목련, 해당화, 진달래, 자귀나무, 치자, 능소화, 장미등과 함께 화류(花類)에 넣어 분류하고 있다.

[후기] 동백나무를 분재로해서 밖에 볼 수 없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대지방에 있어서는 동백나무가 워낙 환경조건, 가령 온도, 햇볕, 토양수분, 토양 등에 대해서 까다로운 것 같아 분재관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꽃봉우리 따주기등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어서 분재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필자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다. 실내분재의 경우 광도(光度) 관계습도, 온도 조절등이 어렵다고 느껴진다.